

발행처 :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 이상운

전화 : +86-10-6437-7896
메일 : 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주간 중국 창업 NEWS

- ▶ AI 에 이어 다른곳의 구인구직수요 또한 증가(상업주간중문판, 2019.2.26)
- ▶ 스마트 농업 “호시탐탐”, 드론과 AI 기술 화룡점정(이어우, 2019.3.2)
- ▶ 더우인(抖音) 해외판 판결의 배후: 유럽&미국 데이터 관리 엄격(제일재경, 2019.3.3)
- ▶ “AI+교육”으로 도시-농촌 교육의 격차 해소 선언(신랑커지, 2019.3.4)

중국 전문가 ISSUE

- ▶ 5G 일보 (2019.2.27-2019.3.5) – KIC 중국 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2019.3.1)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68) (2019.3.6) – 윤형건 교수 제공

주간 중국 VC 투자 요약

- ▶ IT오렌지 후보: 2/25~3/3까지 있었던 58개 국내 투자/합병건(IT오렌지, 2019.3.4)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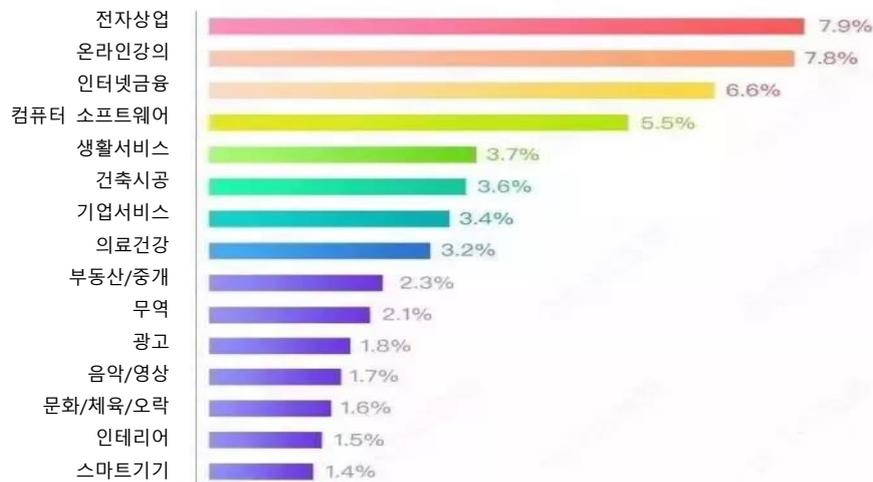
- ▶ 닛케이 평균은 중기적인 상승트렌트로. 이번주 주목은 중국전인대(LIMO, 2019.3.3)
- ▶ 자동차 제조 각사의 중국전략(ITmedia, 2019.3.4)
- ▶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5G의 흐름(my navi, 2019.3.4)
- ▶ 텐센트, 11년간 700사에 투자, 그 중 63사가 상장(CNS AFP, 2019.3.4)
- ▶ 계속 가열되는 중국의 「인재쟁탈전」, 부동산시장에도 리스크(CNS AFP, 2019.3.4)

주간 중국 창업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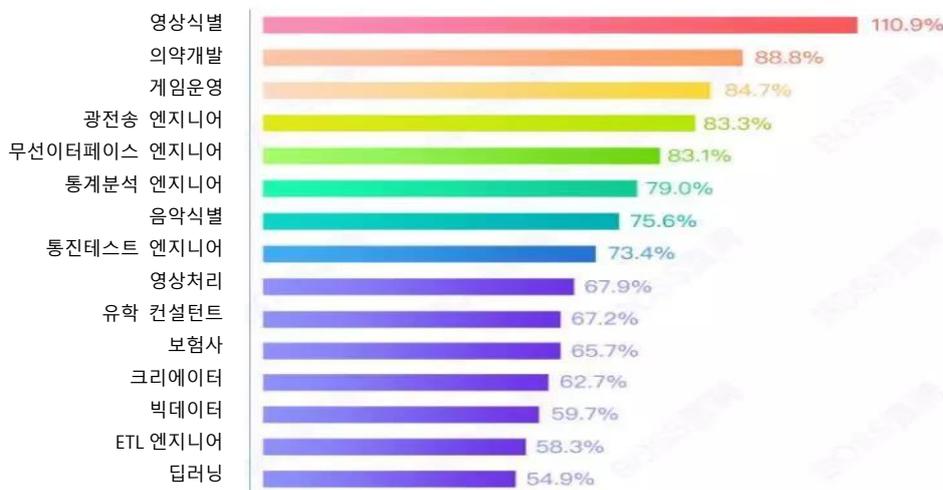
1.AI 에 이어 다른 곳의 구인구직수요 또한 증가(商业周刊中文版, 2019.2.26)

2월 19일, 인터넷 구직 플랫폼 BOSS 직핀(BOSS 直聘)은 2019년 춘절 이후 첫 주 구인구직 상황의 동태를 발표했다. 춘절 이후 첫 주 도시, 업종, 일자리간의 구인구직 움직임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춘절 이후의 구직 열기는 춘절 당일 5일 후부터 이미 시작되어 2018년 보다 하루 빨리 시작됐다. 2019년 춘절 이후 첫 주 구인구직은 2018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구직 수급 상황을 보면, 인터넷 업종이 여전히 가장 왕성하다. 2019년 춘절 이후 첫 주 구직 수요의 가장 왕성한 3분야는 전자상업, 온라인강의와 인터넷금융로 모두 인터넷 관련 업계였다. 2018년 1월 BOSS 직핀의 '2018년 말 시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업계는 역시나 75%의 사람들이 연말 보너스가 높다고 생각하는 업종 중 하나다.

2019년 춘절 이후 가장 왕성한
구직수요 TOP15 업종

보고서를 보면, AI 기술 산업의 구인구직시장 침투에 의한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 2019년 춘절 이후 첫 주 구인 수요가 동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15개 일자리중 AI 관련 일자리가 3분의 1을 넘는다.

2019년 춘절 이후 동기 대비 구직 수요 증가율
가장 높은 TOP15 업종

5G 시대가 열리면서 5G 통신 관련 인력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BOSS 졸업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2019년 춘절 이후 첫 주에 광전송 엔지니어와 무선인터페이스 엔지니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수요가 80% 이상 증가했다. 신에너지 자동차가 부상하고,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가 성장함에 따라 소비재시장 또한 부상하고 있다. 이 4개 산업에 필요한 인재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춘절 이후
각 업종 평균 모집 급여 및 동기 대비 변화



2019년 춘절 이후 첫 주부터 각 업종별 평균 급여 데이터를 살펴보면 급여가 만위안을 돌파한 곳은 금융, 전자통신, 부동산/건축, 자동차, 전문서비스, 문화체육, 소비재와 서비스업종이다. 정책에서의 호재와 장기적인 전망이 좋은 영향으로 에너지, 화학공업, 환경보호 및 제약/의료 산업의 평균 급여가 눈에 띄게 부상하였고, 평균급여 최상위 TOP10으로 진입했다.

2.스마트 농업 “호시탐탐”, 드론과 AI 기술 화룡점정(亿欧, 2019.3.2)

현재 중국은 농업농촌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식량 생산 능력 향상과 안전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농업은 언제나 각국의 핵심 기초산업이기에 농업 분야의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농업 과학 기술을 강화하는 것이 필연적인 추세로 발전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국가 농업 정책의 변화가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전과 상용보급 통해 중국 농업 산업은 날이 갈수록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농업이 점점 정착해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기술(IT)이 부상하고 로봇과 드론 등 스마트 테크놀로지 제품의 응용으로 디지털 농업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드론, 디지털농업 새로운 발전

지상의 “왕자”로 불리는 드론은 과학기술 도구에서 “인프라”로 변신, 각 분야와 일상생활에 “발자취”를 남기고, 점차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 민간용 드론 제조업이 성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품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민간용 드론 분야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추세에 힘입어 중국의 공업용 드론 시장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다중 프로펠러 드론을 포함한 각종 드론은 농업 식물 보호, 농업 모니터링, 지리 측량 제도, 해양 순찰, 소방구조, 교통법 집행, 영상 촬영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농업시장이 드론 업체를 가장 중시하기에 농업용 드론이란 개념이 점차 부흥하게 됐다.

실제로 농업용 드론은 주로 식물 보호용 드론을 말한다. 기존에는 전통적인 식물 보호 방식이 인공적으로 많이 진행돼 효율성이 낮고 원가가 높을 뿐 아니라 작업인력에게 일정 수준의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약물 투여량이 많으면 생태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물 보호 드론의 응용은 인건비 절감과 작업 효율성 향상, 토양 수질 오염 방지 등 난제를 잘 풀어냈다.

드론의 응용은 토지, 농약 등 관련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특성을 이용하여 농업 데이터를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농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 농업의 투명도를 높여 농가와 농업 기업에 관련 조치를 제정, 조정하는데 참고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밖에 소비자도 이를 통해 농업제품의 출처를 파악하고 소비심리를 강화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의 농업 드론 컴퓨터 응용에 대해서는 데이터 안전성 확보, 표준 가속화, 생산 원가 절감 및 제품 성능 향상 등의 일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농업의 배경에서는 데이터 보안과 사생활 보안은 가장 중요하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화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가치가 더욱 상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농업 새로운 변혁의 조력자

2월 28일, 중국인터넷정보센터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18년 12월까지 중국 인터넷 사용자 규모는 8억 2900만명에 달했으며 인터넷 보급률은 59.6%였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규모는 8억 1700만명에 달하였고 농촌 인터넷 사용자 규모는 2억 2200만명에 달하였다. 발달된 인터넷 기술과 비교적 높은 보급률, 방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규모가 있었기에 중국은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서 우세를 차지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물인터넷 시스템의 배치와 농업용 드론의 활용은 디지털농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농업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늘어나는 농업 빅데이터에 대해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그에 맞는 거대한 가치를 발휘시켜야 하는게 시급하다.

현재 인공지능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각국의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인공지능 “삼라만상(무엇이든 완비하고 있다)”을 세분화하면 핵심적으로 심도있는 학습, 기계 알고리즘 등 기술이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 자체 발전 및 응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심도 학습, 기계 알고리즘 등 기술은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의 관계는 상생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디지털 농업의 발전은 데이터 가치의 구현에 의존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 또한 활용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은 디지털 농업 발전을 새로운 변화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디지털 농업이 상업 유형과 시장 규모 등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3.더우인(抖音) 해외판 판결의 배후: 유럽&미국 데이터 관리 엄격

(第一财经, 2019.3.3)

유럽과 미국의 데이터 관리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더우인 해외판 처벌"이라는 말이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7 일 동영상 소셜미디어 앱 (응용프로그램)인 '뮤지컬리(Musical.ly 현 TikTok)'가 FTC 와 관련해 570 만 달러(약 3800 만 위안)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FTC 가 지금까지 아동 프라이버시 관련 사건으로 내린 민사상 벌금의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에 대해 원신국제법률사무소(Nguyen and Chen LLP) 파트너인 어우젠강(欧建刚)씨는 제일재경(第一财经)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입법과 법 집행이 엄격하다. 미국에서 창업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앱은 이러한 부분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보호, 레드라인

2016 년부터, FTC 는 Musical.ly 를 둘러싼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2017 년 11 월, 더우인(抖音)의 모 기업인 Byte Dance(字节跳动)가 Musical.ly 를 10 억 달러에 인수, 더우인 해외판 TikTok 과 합병하여 TikTok 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2 월 28 일, Byte Dance 의 부회장 리량(李亮)은 FTC 의 이번 조사와 처벌은 전에 인수한 Musical.ly 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FTC 는 이 사건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사법부에 부여했고, 미 사법부는 Musical.ly 가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연방무역위원회는 Musical.ly 의 현재 운영자 더우인 해외판 TikTok 이 반드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준수, 13 사 이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TikTok 은 사용자들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세웠으며 그 중엔 부모에게 아이들의 보호를 위한 도구 제공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어우젠강은 “미국 헌법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수정안이 있고, 미 연방과 미국 각 주 또한 생일, 사진, 취향 등을 포함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타인의 동의 없이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이 있다.”고 설명했다.

Musical.ly 가 처음 “지리를 밟은” 회사는 아니다. 일찍이 2013 년에 저소득 가정을 위해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하던 YourTel America Inc.는 17 만 고객의 개인 정보 자료를 인터넷상에 올려 고객들의 신원 정보를 도난당할 위험에 빠지게 했다.

FTC 는 YourTel America Inc 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천만 달러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1998 년 미국국회에서 <아동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통과, 2000 년 정식 발효됐다. 이 법률은 주로 13 세 이하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사이트와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의 정보를 입수, 사용 및 게시하기 전에 반드시 “검증된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 부모가 요구하면 사이트와 서비스 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아동의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어우젠강은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계약법의 계약 능력 문제, 즉 민사 주체의 행위 능력 문제와 같다. 이에 대해 중국과 미국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아동은 타인이 자신의 권리 침해를 허락할 민사 행위 능력이 없다. 마치 아동은 계약 체계의 권리가 없는 것과 같다. 부모는 아동의 보호자이며 법정 대리인으로 아동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그럼으로 아동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Musical.ly 사건 중에서, 이 회사는 12 세 이하의 사용자의 개인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계정은 동영상에 대한 좋아요와 구독만 가능, 자신의 동영상을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Musical.ly 는 연령 검사 요구가 없었기에 미성년이 계정을 만들 때 허위로 나이를 신고하면 해당 제제를 우회할 수 있다.

FTC 측은 Musical.ly 의 아이들의 정보 수집과 정보 노출을 포함한 불안정한 운영에 대해 폭로했다. 수천명의 부모로부터 민원 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동들의 몇몇 계정만 지웠을 뿐 플랫폼의 올린 동영상과 파일 정보는 삭제하지 않았다.

엄격해지는 디지털 관리

미국과 비교해서 유럽의 디지털 관리는 더욱 엄격하다. 2018 년 5 월 25 일, 유럽 연합은 <일반데이터보호조항>(GDPR)을 정식 발효했다. 이 법규는 더욱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의 통일된 규범을 정립하여 사용자 개인 데이터 보호 권리를 확대하고 동시에 기업의 개인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대해 더욱 높은 투명성을 요구한다.

<일반데이터보호조항>을 위반 시 받는 처벌 수위도 올라간다. 위반 시 두 조항 중 금액이 더 높은것을 기준으로 2000 만 유로 또는 일년 매출의 4% 수준의 높은 처벌을 받는다. 유럽 연합의 국민이 사용하는 모든 휴대폰 APP 은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미국 회사들은 작년 5 월 법률이 발효되기 전 미리 해당 사항을 변경했다.

4. “AI+교육”으로 도시-농촌 교육의 격차 해소 선언 (新浪科技, 2019.3.4)

3월 4일, 전국 정치협상위원회, 넷이즈(网易) 이사 겸 최고경영자(CEO)인 덩레이(丁磊)는 올해 양회(两会)에서 “혁신적 스마트 교육 방식”, “최신 제조 기술 업그레이드 추진”, “전자상거래를 통한 빈곤 구제” 및 “미성년자 건전한 인터넷” 등 여러 주제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빈곤 산악 지역에 스마트 교육 보급

덩레이 위원은 “AI+교육” 등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도시-농촌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빈곤 되물림을 없애 중국 도시-농촌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생방송, VR, 인공지능 같은 스마트 교육 기술은 양질의 교육 자원을 빈곤한 산악 지역에 동기화할 수 있다.

서면 권고로는 도시-농촌의 일체화된 “사이버 디지털 학교”를 만들고, 양질의 교육자원을 도입, 교사 능력 수준을 강화, 스마트 교육 모델을 업그레이드, 빈곤 지역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스마트 교육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기업을 관련 기술 및 시설 연구에 참여시켜 인공지능 등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교육 시너지와 평가 유효성을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AI”에 관한 예로 아이리스펜(펜스캐너)을 통해 현지 교사들의 체점 부담을 줄였고, 번역 스캔펜의 일반화는 학생들의 독학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 음성 인식, 음성 번역, 스피킹 테스트 등의 기능을 통해 과학적인 학습 성과 평가가 가능하다. 인터넷 강의와 AI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교육은 수강, 학습, 연습, 테스트, 평가 각 부분을 연결시킨다.

지역 특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빈곤 구제에 일조

올해는 탈빈공격전(打赢脱贫攻坚战)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의 중요한 해이다. 덩레이 위원은 빈곤 지역의 특산물을 빈곤 탈출로로 제시, 제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품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충족을 권고했다.

작년 넷이즈 엄슈옌(网易严选)은 구이저우성(贵州省) 레이산현(雷山县)과 제휴하여, “브랜드 협력 빈곤탈출 계획”을 가동했다.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컨설턴트의 역량을 활용, 지역 산업 발전 기획, 공급 체인의 원천, 상품 만들기 등을 시작으로 레이산현 지역의 브랜드 부능(赋能) 능력을 부여)을 통한 빈곤 탈출을 실행하고 레이산현 지역의 이색 특산물을 개발하여 구빈 정조준(精准扶贫)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실천과 조사를 결합하여 서면 권고로 통일표시, 빈곤지역의 현지 특산물 독자 브랜드 만들기, 스마트 도우미, 전문가 컨설턴트 도입, 빅데이터 등 지도방식 도입; 발상의 전환, 인터넷을 더 잘 아는 “신(新) 농민” 교육; 정책, 금융, 전자상거래 자원을 빈곤 지역에 집중 등 4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인터넷+최신 제조 기술” 업그레이드 추진

덩레이 위원은 현재 중국 경제의 구조 최적화 추세가 뚜렷하고, “인터넷+최신 제조 기술”을 심화시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서면 권고로 공업 사물 인터넷의 발전을 심화시켜 최신 제조 기술에 날개를 달아주고, 중국 제조업체 자체 브랜드를 육성해 소비 품질 개선에 수요를 충족시키며,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표준적인 지도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사용자 수요를 파악하고 생산을 최적화해 중국 제조 기술을 스마트화, 고품격화, 시장화한다. 넷이즈 엄슈옌은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실천과 산업사슬 프로세스의 재편, 생산판매 과정 단축, 공급의 품질 개선, 전자상거래 업계의 품질과 서비스 표준을 선도

하고 있다. 덩레이 위원은 “인터넷+최신 제조 기술”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에 양질의 “메이드 인 차이나”를 통해 중국 소비를 더 많이 촉진할 것이라 보고 있다.

미성년자 건전한 성장 주목

청소년 교육과 건전한 성장은 덩레이 위원의 초미에 관심사였으며, 2 년 연속 전문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올해에는 스마트 기기에 아동 모드를 보급,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중독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제안은 더 많은 아동 야외 활동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야외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건전한 인터넷 접속에 관한 서면 권고로 스마트 기기에 “아동 모드” 기능 추가; 청소년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 촉진;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네트워크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중국 어린이의 인성교육을 높이고, 아동 야외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관해서 첫번째 전문적으로 어린이 야외활동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야외공간을 제공, 현재 존재하는 청소년센터 개선; 두번째로는 사회, 학교, 미디어 등 다방면 교육을 통한 아동 야외활동 인식 강화; 세번째로는 아동 야외활동의 통계조사와 분석평가를 정부 교육부의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간 중국 전문가 ISSUE**5G 일보** (2019.2.27-2019.3.5)

5G 위챗 공식계정은 5G, IoT, IoV(Internet of Vehicles)를 보도하는 신매체플랫폼입니다. 본 자료는 5G 위챗 공식계정에 올라온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의 5G 관련 주요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본 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info@kicchina.org로 문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이나 모바일(中国移动) “선점”: 올해 베이징(北京) 오환 내 5G 전면 배치(5G, 2019.3.1)

3월 1일, <베이징 일보(北京日报)>는 통신사들이 5G 기지국 배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5G 위챗 공식계정(ID: angmoblie)에 따르면 차이나 모바일(中国移动) 베이징 지부는 이미 5G 기지국 건설에 많은 힘을 쏟고 있으면 연말까지 베이징 오환구역내 모든 지역에 5G 신호를 전면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대 통신사들은 이미 모두 베이징에 5G 기지국을 개통했다.

최근 차이나 모바일 베이징 지사는 귀마오(国贸) 상업구역에 자사 최초 5G 기지국을 개통했으며 다운로드 속도가 2.8Gbps 에 달한다. 중르유하오 병원과 CCTV 본사(央视大楼) 등 지역에도 5G 신호 배치를 완료, 기관과 시민들이 회진과 고화질 영상 전송 등에 5G 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차이나 텔레콤(中国电信) 베이징 지사 관계자는 이미 최소 8 곳의 5G 기지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또한 베이징 세계원예박람원(世园会) 등 지역에 5G 기지국 건설 준비를 마쳤으며 개통을 앞두고 있다. 차이나 텔레콤 지부는 세계원예박람원 5G 전시관을 건설, 시민들이 직접 자동차 사물인터넷, VR 등 5G 를 활용한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2018 년, 차이나 유니콤(中国联通) 베이징 지사는 베이징에 우선적으로 5G 기지국을 개통했다. 먼저 서부 금융거리(西城金融街), 하이덴 다오상호(海淀稻香湖) 등 지역에 배치했으며 베이징 창화 빌딩(北京长话大楼)와 메이디야 센터(梅地亚中心) 등에도 5G 신호를 개통했다. 또한 도시 부 중심업무지구(城市副中心), 신공항(新机场)과 창안지에(长安街) 주변 등 중점 구역에 우선적으로 5G 기지국을 건설할 예정이다.

2.전국 최초! 법원 5G 원거리 심문(5G, 2019.2.16)

3월, 전국 최초로 “5G+법원” 원거리 심문이 진행됐다. 광저우(广州) 인터넷 법원 후젠민(胡剑敏) 판사는 인터넷 중계권 분쟁에 관한 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전국 인민대회 대표(총 20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법정 내부는 판사석 심판대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전통 법원의 원고,피고석이 사라졌다. 화면 속 당사자들은 판사의 인도에 따라 답변, 증거 제출, 대질 등을 이어갔다. 5G 네트워크를 기반한 4K 초고화질 영상 전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3자간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다.

법정은 5G 네트워크를 기반하여 4K 초고화질 영상을 전송, 고품질의 심문을 완성했다. 5G 네트워크의 암호 기술을 통해 당사자들은 프라이버시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심리 과정 중 스마트 음성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영상 + 음성 + 문자” 등 다중 미디어, 실시간 스마트 기록 체계를 설립하여 “무인 스마트 기록”을 실현했다.



방청이 끝난 후, 대표들은 흥미롭게 소송 서비스홀을 참관했다. 전천후 셀프 입안 클라우드 플랫폼, 소송 가이드 로봇이 많은 이목을 끌었다.

또한 현장에서 “원 터치 입안”, “원 터치 중재”, “원 터치 보증”, “원 터치 심리”, “원 터치 배달”의 온라인 소송 서비스 시스템을 체험했다. 대표들은 “사람이 직접 될 필요 없이 데이터가 다 해주는 시대가 온거 같아요.” “요즘 네트워크 분쟁이 많은데 새로운 재판 방식은 시대의 발전에 발맞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한 보호에 있어 보안, 즉시, 효과적 보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광저우 인터넷 법원은 2018년 9월 28일날 설립되어 현재까지 1575건의 재판을 마무리했으며 판사마다 평균 93건을 판결을 내렸다.

3.차이나 유니콤(中国联通) 상하이(上海)지사: 5 월 말 “수 천개” 5G 기지 건설 예정!

(5G, 2019.3.5)

3 월 5 일, 차이나 유니콤(中国联通) 상하이(上海) 지사의 “5G 앞선 배치(超前部署)”가 현재 진행 중이다. 5G 위챗 공식계정(ID:angmobile)에 따르면 상하이 지사는 이미 1 기 5G 네트워크 배치를 완료, 2 기 5G 네트워크 배치를 추진 중이다. 5 월 말 “수 천개” 의 5G 기지국을 배치 완료, 5G 의 공식 상용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1. 5G 네트워크 건설, 현재 가속화 중

차이나 유니콤 상하이 지사 5G 네트워크는 현재까지 상하이 핵심구역 및 칭푸취(青浦区), 송장취(松江区), 푸둥신취(浦东新区), 자딩취(嘉定区), 양푸취(杨浦区), 홍커우취(虹口区), 황푸취(黄浦区), 충밍취(崇明区) 등의 귀잔(国展국가 전시센터), 대학로, 과학기술원, 여행지, 쇼핑센터 등 주요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한편 상하이 지사에서 현재 건설 중인 5G 네트워크는 홍차오 기차역(虹桥火车站), 홍차오 공항(虹桥机场), 황푸취(와이탄(外滩)/난징로(南京路)/인민광장(人民广场)), 루자꾸이 금융무역구(陆家嘴金融贸易区), 상하이 기차역, 신귀잔(新国展) 및 세기공원(世纪公园), 옌안 고속도로(延安高架), 장장공업단지(张江工业园区), 징후(京沪) 고속도로, 강변 도로(滨江步道), 디즈니 공원, 푸둥(浦东) 국제공항, 쉬자후이(徐家汇)CBD 및 차오허징신흥기술개발구(漕河泾新兴技术开发区)를 포함한 지역들에 분포되어 있으며 4 월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2. “5G+ 업계” 애플리케이션을 발전 중

상하이시의 5G 중점 시범 응용 공정에서 사업자는 모두 5 개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그 중 차이나 유니콤은 5G 스마트 팩토리, 5G 드론 순찰, 5G 원격 의료 등 3 가지를 차지하고 있다.

5G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상하이 지사는 운영상 우세를 이용, 통신기술의 특징에 따라 대용량 개인 클라우드, 빠른 계산 능력을 결합하여 설계, 구매, 생산, 창고, 물류, 판매, 서비스의 각 단계를 연결, 생산의 편평화, 정제화, 스마트화를 추진, 데이터 공유, 빠른 인터넷 접속,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화, 스마트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 브레인”을 구축할 것이다. 5G 공업용 드론 순찰 분야에서 상하이 지사는 전력 공급 선로, 송유관, 가스관 등의 순찰에서는 5G 네트워크의 낮은 지연, 높은 신뢰성 특성에 의존하여 열악한 환경에서의 무인화(无人化), 상시화(常态化), 스마트화 작업을 실현한다. 5G 위챗 공식계정(ID:angmobile)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 지사는 상하이 천연가스 유한회사(上海天然气管网有限公司)와 협력하여 식별제어 보호구역 범위를 구현하고, 이를 위한 순찰작업을 실시, 배관 양쪽의 점압, 시공에 대한 점검, 촬영된 영상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통제보호구역의 현황을 반영하고, 드론의 전후 2 회 촬영 영상을 자동으로 비교 분석한다. 드론 순찰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원가를 낮췄으며 작업인원의 안전도 보장하게 됐다.

5G 드론 분야에서 상하이 지사는 린강(临港)자율주행 시험구역 5G 기지국을 건설, 구역 내 자율주행 차량 실험을 뒷받침한다.

상하이 지사는 5G 수직(垂直) 업종 적용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정부, 금융, 과학기술, 교통, 안전, 제조,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발굴해 수직 업종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계속 높이며 도시 관리 세밀화에 힘쓰고 있다.

3. 대표 프로젝트: 5G 스마트 팩토리

현재, 차이나 유니콤과 중국 비행기 상업이 연합하여 상하이 비행기 제조 유한회사(上海飞机制造有限公司) 공장단지에서 5G 스마트 팩토리 및 5G 기반 십대공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5G 팩토리 구역이고 5G 기술 공업 제조 영역의 심도 있는 응용이다. 5G 고속률, 낮은 프레임, 인터넷의 연결 능력을 기반으로 5G 기술과 민용기 제조 공예의 융합 탐색, 오차율 감소, 장치 효율 상승, 전통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실현했다.

또한 상하이 지사 5G 어플리케이션 영역의 수 많은 “최초” 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상하이 지사 기술위원은 기자에게 상하이 지사는 운영상 우세를 이용, 통신기술의 특징에 따라 대용량 개인 클라우드, 빠른 계산 능력을 결합하여 설계, 구매, 생산, 창고, 물류, 판매, 서비스의 각 단계를 연결, 생산의 편평화, 정제화, 스마트화를 추진, 데이터 공유, 빠른 인터넷 접속,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화, 스마트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 브레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5G 는 먼저 사람 관리에 이용된다. 대형 비행기 생산에는 높은 기밀성과 보안 수준이 요구되어 엄격한 출입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스마트 팩토리”의 솔루션은 디지털 제어 작업장에 안전 인식 출입 시스템 설치이다. 5G 네트워크 버퍼링은 최소 1 초미만으로, 사람의 얼굴과 클라우드에 저장된 기록을 빠르게 비교하여 식별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 다음은 물품의 관리다. 비행기 생산에 수천개의 부품이 사용되며 그 중 많은 부품들은 장인들의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 “스마트 팩토리”는 5G 네트워크에 탑재된 실내 포지셔닝 시스템을 통해 작업장에 비치된 각 부품들의 위치 오차를 3cm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장인들이 실내 설계시 필요한 장비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기술이 가장 많이 이용된 기술은 5G 네트워크 광대역, 낮은 버퍼링 특성, 디지털 제어 작업장 운행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수집 진행이다. 기존 공업 생산중에서 제품 품질의 검열 단계는 통상적으로 마지막 순서로 배치, 일종의 사후 감독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제어 작업장 센서가 탑재된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제어 작업장에 운행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스마트 플랫폼 혹은 “클라우드”로 전송, 데이터 유형과 비교가 가능하다. 이상이 있을 경우 빠른 시간내에 경고를 알린다.

최근까지 상하이 지사는 상하이 비행기 제조 유한회사 단지 안에서 5G 네트워크와 MEC 에지 컴퓨팅의 배치를 완료하였다.

상하이 지사는 안전한 5G 네트워크 환경과 5G 광대역, 낮은 프레임 특징을 기반으로 디지털 제어 작업, 상호접속 관리, 차량용 컴퓨터 등 혁신적인 기술

ICO News Letter by PLAYCOIN (2019.3.1)



1. 중국정부 허가받은 1호 '블록체인 기업' 등장(FN TODAY, 2019.2.24)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블록체인 기업이 처음 탄생했다.

22일 다수의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 블록체인 기업 '산둥량차오쯔량리엔커지'(쯔량리엔)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 인터넷규제를 담당하는 사이버관리국(CAC)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을 처음으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중국 정부의 지원아래 합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블록체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규정을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관리규정에 따르면 블록체인 업체는 반드시 행정규정을 따라야 하며 정부가 법으로 금지하는 콘텐츠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제작·복사·보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쯔량리엔은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제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접목해 투명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이다. 이 회사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CAC 산하 '블록체인기술안전검색센터'의 엄격한 코드감사와 보안점검,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화 검증시스템 등을 통과했다.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일종의 디지털 공공거래 장부다. 모든 유통과정이 기록되기 때문에 특정상품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핵심이 되는 문제를 파악해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식품추적, 물류관리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쯔량리엔 블록체인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쯔량리엔의 대표적인 파트너사는 중국 가전업체 '미데아'(Midea)와 맥주회사인 '칭다오'를 포함해 제약사, 도자기 제조사 등이다.

중국 인민망은 "쯔량리엔이 최초로 정부로부터 블록체인 안전인증서를 받은 기업으로 산업표준이 될 것"이라며 "이들이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을 전세계로 보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암호화폐공개(ICO)와 거래사이트 운영을 차단하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무조건 금지시켰다. 그러면서도 블록체인 산업육성은 전폭 지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 블록체인 기술육성이 중국의 중·단기 경제개발계획인 '제 13차 5개년 계획'(13.5 계획)에 포함됐을 정도다. CAC 블록체인 규제안도 '제도권 내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표명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블록체인 규제안'을 통과하면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6개월마다 사용자 데이터를 백업하고 법 집행기관은 언제든지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는다.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최대 3만위안(약 49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정부는 CAC 규정을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전까지 중국은 자국내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CAC를 통해 IT 산업군을 철저히 감독·규제하고 있다. 블록체인 외에도 인터넷 뉴스·게임·동영상·간편결제 등도 감독하고 있는 중 이었다.

2. 플레이코인, 태국 뷰티 기업 네온화이트와 암호화폐 결제시스템 독점계약(공유경제, 2019.2.25)

블록체인 전문기업 게임허브코리아(대표 김호광)는 태국 화장품 판매 1위 기업인 네온화이트와 암호화폐 지급 PlayWallet 및 암호화폐 간편결제 시스템 PlayPay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온화이트는 태국 내 MBK 쇼핑몰(800평)에 K-Beauty 샵을 오픈할 예정이며, K-Beauty 샵에서는 화장품, 에스테틱, 네일아트, 메이크업, 헤어 등의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뷰티아카데미 및 뷰티 체험을 할 수 있

다. K-Beauty 샵에서는 암호화폐 간편결제 시스템인 플레이페이를 통하여 플레이코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게임허브코리아 김호광 대표는 "플레이코인은 태국의 대표적인 뷰티 커머스기업인 네온화이트와의 이번 계약을 통하여 태국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며, 암호화폐 지급 및 암호화폐 페이먼트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며, 플레이코인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플레이코인은 성공적인 암호화폐 공개(ICO)와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 상장,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 등 블록체인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주요 이정표를 차례로 달성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시장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플레이코인은 태국을 교두보로 하여 아직 암호화폐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않은 동남아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휴처를 확대하여 기술로만 존재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아닌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3.中 바이두, "블록체인 플랫폼, 5만 5천 TPS 돌파"(ZD넷, 2019.2.25)

바이두가 지난해 실적을 공개하면서 블록체인 영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바이두는 재무보고서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언급하며 "블록체인 OS 인 '슈퍼체인(Xuper Chain)'이 5만 5000 TPS(초당거래량)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가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바이두는 "블록체인 사업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베이징 인터넷 법원과 협력해 슈퍼체인에 기반한 전자 증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두는 슈퍼체인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약 등 모듈을 개발해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재무보고서에서 구체적 성능을 언급하면서 정보 보안, 판권 검증, 공급망 대출, 온라인 거래 등 영역에서 각종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베이징 법원뿐 아니라 바이두는 중국 하이난성과도 협력해 여러 업종에 바이두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업계 전반의 TPS 성능 부족과 낮은 효율은 여러 차례 문제로 꼽히기도 했다. 비트코인의 초당 처리량은 7건에 불과하며 이더리움의 초당 처리량은 20~30건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TPS로 인해 초당 발행량이 지나치게 낮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퍼블릭체인의 거래 비용이 높아지고 확정 시간도 길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화웨이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아직 7TPS~100TPS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4.중국 블록체인 순위 EOS 9개월 연속 1위, 트론 2위(블록미디어, 2019.2.27)

중국 정부 당국이 매달 선정하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 순위에서 2월에도 EOS가 1위에 오르며, 9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7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산하 전기정보산업개발국(CCID)이 전날 발표한 '세계 퍼블릭체인 기술 평가 지수' 순위에서 EOS가 1위를 차지했다. EOS는 지난해 6월부터 수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 순위에 진입한 트론(Tron)이 그동안 2위를 지켜오던 이더리움을 밀어내고 단번에 2위에 올라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5 월 첫 조사에서 1 위를 한 후 계속 2 위를 지켜왔던 이더리움은 트론에 이어 3 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지난해 8 월에 처음 10 위로 10 위권에 이름을 올린 후 줄곧 13 위 아래에 머물던 비트코인은 지난 1 월 15 위에서 2 월에는 13 위로 순위가 올랐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 월부터 이 조사를 시작했다.

CCID 측은 이번 달부터 조사 대상 암호화폐 수를 34 개에서 35 개로 늘렸다면서, 새로 순위에 진입한 트론의 경우 높은 성능과 일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지원이 우수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68) (2019.3.y)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팔리는 디자인 - 소비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 해 주는가?

야단법석이 났다. 컵 하나 사려고 싸움이 났고, 매장 앞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새우며 기다린다. 유명 스타 공연에서 티켓을 사려고 몸싸움이나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우며 기다리던 광경을 보았지만, 이건 '컵'이다.

그렇다면 이 컵은 매우 비싼 컵인가? '물을 넣으면 포도주로 변화든지 아니면 독주가 정말 순한 술로 변화든지' 하는 그런 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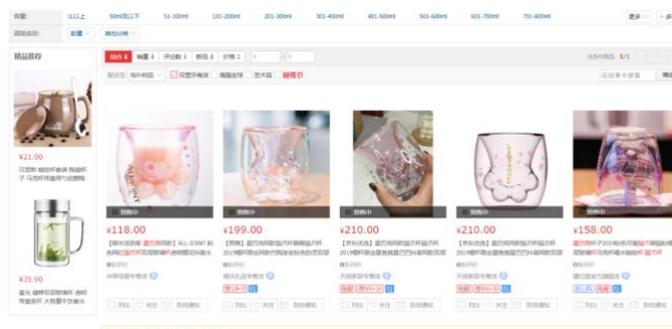
그렇지도 않다. 도대체 어떤 컵이기에 이런 요란법석을 떠는가?

스타벅스가 봄을 맞이하여 판매한 이중 유리컵이다. 외형은 일반 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안쪽 유리는 고양이 발의 형상을 하였다. 컵 안에 커피나 오렌지 주스를 넣으면 선명하게 고양이 발 모양이 나타난다.



◀(없어서 팔 수 없는 고양이 발의 형상을 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이중 유리컵)

귀여운 고양이 발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대중에게 먹혔다. 필자는 이걸 보고 '역시 현시대는 감성의 시대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가격이 200 위엔(3.4 만 원)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이것의 반의반 가격으로 얼마든지 이중 유리컵은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예쁘고 귀여우니 가격은 별문제 안된다. 감성적으로 접근하니 구매는 폭발적이었다.



▲(없어서 팔 수 없는 고양이 발의 형상을 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이중 유리컵)

스타벅스에선 이미 재고까지 떨어져 팔 물건이 없다. 인터넷 온라인 매장에서는 예약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가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없다. 진품 중고는 5~600 위엔 (8.5~10 만 원)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러나 말이 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켰나? 최근 중국은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 중 젊은 여성이 특히 고양이를 많이 기른다. 고양이가 그릇에 담긴 우유를 혀를 날름거리면서 먹는 이미지가 너무 귀엽다.

그런데 소비자가 우유나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우유를 먹는 귀여운 고양이 이미지하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고, 타인들도 그렇게 봐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소비자 마음에 들어오면 이 정도 컵 값은 아무것도 아니다.

디자인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해 준다면 디자인으로 충분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소비자는 디자인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구현하길 원하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산다.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디자인의 역할이며 그런 디자인은 팔린다.

젊은 여성은 한 잔의 우유, 커피를 마시면서 컵 하나로 자기의 귀여움이 연출된다면 'That's OK'이다. 이래서 디자인은 마케팅에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주간 중국 VC 투자 요약

IT 오렌지 주보: 2/25~3/3 까지 있었던 58 개 국내 투자/합병건

(출처:IT 오렌지주보(IT 桔子), 2019.3.4)

IT 오렌지의 지난 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주(2.25~3.3)는 총 58건의 투자/합병이 발생하여 지난 주 157건과 비교하여 큰 하락세를 보였다. 분야별로 보면, 의료건강 분야가 투자 금융 건이 제일 많이 발생한 업종으로 17% 차지했으며 10건의 투자/합병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업서비스 분야가 14% 차지했으며, 8건의 투자 사건이 나타났고, 하드웨어 분야가 3위로 10% 차지하면서, 6건의 투자/합병 사건이 나타났다. 이번 라운드도 보면, 평소와 같이 초반에 발생한 투자가 많다. 이 중 A라운드 용자가 33% 차지하면서 19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2위는 전략투자가 10건 발생으로 17%를 차지했다. B라운드 용자는 9건 발생으로 15%를 차지했다.

지난 주, 알리바바(阿里巴巴), 바이두(百度) 및 인터넷 기업들이 투자동향을 보였다.

알리바바는 2 건의 투자에 참여했다.

3 월 1 일, 장기임대주택 운영업체 “단커궁위(蛋壳公寓)”는 5 억 달러 C 라운드 용자를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타이거 펀드(老虎环球基金)와 앤트 파이낸셜(蚂蚁金服)이 첫 투자자로 나섰고 춘화 캐피탈(春花资本)이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CMC 캐피탈, 가오룽 캐피탈(高榕资本), 조이 캐피탈(愉悦资本) 등 구주주들도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플랫폼 “칭완서(青团社)”가 수 억위안의 B+라운드 용자를 유치했다. 앤트 파이낸셜(蚂蚁金服)이 첫 투자자로 나섰고 하오리라이 산업 재단(好利来产业基金), 바오리 캐피탈(保利资本)이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바이두는 1 건의 투자에 참여했다.

3D 와 기계학습 기술을 고업 자동화에 적용한 스타트업 회사 “아추테크(阿丘科技)”는 수 천만 달러 A+라운드 용자를 유치했다. 레전드 캐피탈(君联资本)이 첫 투자자로 나섰고 구주주 DCM, BV 바이두 벤처스(百度风投)에서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기적 캐피탈(奇迹资本)에서 단독으로 재무고문을 맡았다.

시나닷컴(新浪)은 1 건의 투자에 참여했다.

최근, 금융 과학기술회사 “슈허테크(数禾科技)”는 시나닷컴으로부터 3000 만달러 B 라운드 용자를 유치했다.

샤오미(小米)는 1 건의 투자에 참여했다.

최근, 커뮤니티 제품 “쭈이유 APP(最右 APP)”는 8000 만 달러 C 라운드 용자를 완성했다. 샤오미에서 첫 투자자로 나섰으며 일부 주주들이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투자/합병 사건이 발생했다:

2 월 28 일, 과쯔 중고차(瓜子二手车), 마오더우신차왕(毛豆新车网)의 모기업 “처하오뉘(车好多)”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软银愿景基金)로부터 15 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타이허 캐피탈(泰合资本)에서 단독으로 재무고문을 맡았다.

AI 칩 회사 “지평선(地平线)”이 6 억 달러의 B 라운드 용자를 유치했다. SK 중국,SK 하이닉스 및 중국 자동차 그룹들이 첫 투자자로 나서서 약 6 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시가는 30 억 달러에 달한다.

2 월 18 일, 온라인 랭귀지 트레이닝 브랜드 "acadsoc(阿卡索)"는 억위안급 C1 라운드 용자를 완성했다. 구주주인 IDG 캐피탈과 선창투(深创投)가 첫 투자자로 나섰으며, 광둥문화사업투자(广东文投)와 포푸펀드(泊富基金)가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소셜 공동구매 플랫폼 "다람쥐 핀핀(松鼠拼拼)"이 3100 만 달러의 B1 라운드 용자를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가오링 캐피탈(高瓴资本), 허위 캐피탈(和玉资本)이 첫 투자자로 나섰고 IDG 캐피탈, Sky9 캐피탈(云九资本) 및 메이툰(美团)의 COO 였던 간자웨이(干嘉伟) 등의 구주주들이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3 월 1 일, 서안은행(西安银行)이 발행가 4.68 원에 상장했다.

위아이위자(我爱我家)는 부동산 종합 마케팅 회사 "란하이거우(蓝海购)"의 100%지분을 인수했다.

2 월 26 일, 생물제약회사 "초석약업(基石药业)"이 홍콩증권소에 정식으로 상장했다. 한 주당 12 홍콩 달러로 1.86 억 주를 발행하여 23.32 억 홍콩 달러의 다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 설계회사 "화양 글로벌(华阳国际)"이 선전증권소에 정식으로 상장했다. 한 주당 10.51 원에 총 49,030,000 주를 발행했다.

주간 투자현장 일람표

주간 투자&합병 일람표는 상기 오렌지주보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1. 닛케이 평균은 중기적인 상승트렌트로. 이번주 주목은 중국전인대

(LIMO, 2019.3.3)

등락을 반복하면서, 약 2 개월만에 고수준으로

2019 년 3 월 1 일 닛케이 평균주가 종가는, 전날보다 217 엔 53 전 높은 21,602 엔 69 전이었다. 약 2 개월만만의 높은 수준이다. 지난주는 거래가 적은 가운데 이벤트도 많고, 등락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전 주 미 주식시세가 상승한 것과, 뉴욕 외국외환시장에서 엔시세가 111 엔대와 엔저, 달리고 수준이 된 영향으로, 수출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6 일에 인도공군이 파키스탄을 공습했다고 전해지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견해가 퍼져 매도가 늘었습니다.

이어지는 27 일~28 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조선 김정은 위원장의 두번째가 되는 미북(米朝) 정상회담은, 양자에 의한 합의문서가 나오지 않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단지 코앞에는, 직전의 엔저와, 중국의 2 월 재신제조업구매담당자경기지수(PMI), 국내법인기업통계에서의 설비투자액 신장등이 호재로, 주말에 걸쳐 매수가 있었습니다.

금주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주에 대해서는 최근의 미 주식시세와 환율시세에 흔들리는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일 미주식시장에서는 다우공업주 30 종 평균이 4 일만에 반등해, 전일대비 110 달러 32 센트 고인 26,026 달러 32 센트가 되었습니다. 또, 1 일 뉴욕외국환율시장에서 엔시세는 1 달러=111 엔 85~95 전으로 엔저, 달리고 되기도 해, 일본주도 주초부터 동반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조,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지만, 이것으로 인해 세계주식이 동시하락이 될 정도는 아닌 듯 합니다. 그것보다도 역시 주목받는 것은 중국경제의 행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협약의 진전이 기대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국경기의 감속우려도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3 월 5 일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립니다.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인플라투자등도 포함해, 경기확대를 위한 어떤 정책이 나올까 기대됩니다. 8 일에는 2 월의 미 고용통계도 발표됩니다. 25 일선과 75 일선의 골덴크로스 형성이 엿보입니다.

지난주 움직임을 테크니컬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주초 25 일은 상승했지만, 그 후는 음선과 양선이 반복되는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단, 실체는 짧고, 방향성이 좋지 않은 전개였습니다. 28 일은 음선이 되어 5 일 이동평균선을 밀돌았지만, 3 월 1 일에는 바로 반등했습니다.

금주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3 월 1 일의 음선은 길고, 지난주 높은 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금주 더욱 상승으로의 기대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차트형태를 보면, 25 일 이동평균선이 힘차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75 일 이동평균선도 하향에서 답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25 일선이 75 일선에 다가가, 밑에서 위로 빠지는 골든크로스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골든크로스가 형성된다면, 2018 년 9 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 후는 10 월 2 일의 24,448 엔까지 상승하고 있어, 실현된다면, 한층 위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높아집니다.

이번주는 먼저, 작년 10 월 2 일부터 12 월 26 일의 하락폭의 반값되돌리기가 되는 21,713 엔이 목표가 됩니다. 그 후는 심리적인 포인트인 22,000 엔과, 작년 12 월 3 일의 고가 22,698 엔등이 바로 바라보는 상승가가 될 것입니다. 역으로 여기부터 조정이 된다고 하면, 하한가는 75 일선과 25 일선이 겹치는 21,000 엔 부근, 2 월 8 일에 20,315 엔 근처가 될 듯 합니다.

단, 지금까지 몇번이나 시도해도 튕겨져 나온 21,000 엔과 75 일선을 돌파한 것에 더해, 중기적인 상승트렌드로 전환된 것에서 목표는 상승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매수 호기라고 생각해도 좋을 듯 합니다.

시모하라카즈아끼 下原 一晃

2. 자동차 제조 각사의 중국전략 (ITmedia, 2019.3.4)

급 확대되는 중국시장에 대해, 일본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취하는 전략이란?

현재, 세계에서 연간 판매되는 신차는 거의 1 억대, 그 중 중국에서의 판매가 4 분의 1 을 넘어, 3 분에 1 에 이르러 하고 있다.



인도국민에게 모터리제이션을 가져 온 「알토 800」

세계최대의 시장을 앞에 두고, 자동차 제조사에 있어서 중국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간단히 할 수 없다. 중국에서 판다는 것은 당연히, 오히려 거기서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가 경쟁상의 커다란 분기점이 된다.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그 앞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현재, 중국은 자동차 수입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자동차 쇄국 정책을 하는 나라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현지에서 생산하는 이외는 방법이 없다. 하나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공장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지만, 25 만대 정도가 표준적이다. 중국에서 판다는 것은 즉, 중국에서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 팔고 싶으면 더 공장을 짓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려고 한다면, 현지자본의 기업에 적어도 반은 출자 참여를 받아야 하는 룰이다.

원래, 중국정부의 목적은 기술의 습득이었다. 어떻게 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배우고 싶어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술표절이라고 한다. 아무튼 말하는 표현의 차이로 어느쪽이든 기술습득이 목적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을 진행해 가자, 기술을 습득하는 필요는 그다지 필요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외 제조사를 유치해서 자동차를 만들게 하면, 고용이 생기고, 소비자 늘고, 기업이 잘 되면 반은 중국자본이 된다. 세수 역시 제조, 판매, 이용의 모든 단계를 통해 다양한 계층에서 얻을 수 있다. 장래에 해외제조사가 중국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수출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것도 또 반은 중국기업의 것이다. 이것저것 엄격한 룰을 부과하고, 진출에 장벽을 높이는 것보다는, 허들을 낮추어, 해외에서 온 기업이 알아서 중국을 윤택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지금 중국은 그러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글로벌비즈니스에는 컨트리 리스크가 있다. 지금 핫한 예로 말하자면, 영국의 EU 이탈문제도 그렇다. 프랑스 데모도 그렇다. 일본 역시 지진재해 리스크가 높다. 문제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는 어디든 반드시 있는 그 리스크의 성질이 어떻게 다르고, 그 리스크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이다.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이번에는 중국의 컨트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전략차를 몇 제조사를 비교하면서 살펴 보려한다.

중국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한 이유

지난주 기사에서 쓴 대로, 혼다가 영국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유럽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는 중국에서 제조할 것을 발표했다.

중국을 21 세기 스타트와 함께 모터리제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불과 20 년에 현재의 시장규모에 도달한 이유는, 선행한 각국이 시행착오를 한 결과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크다. 모방을 지적한다면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는다. 원래 자동차를 발명한 것은 독일이다.

자, 자동차는 사회성이 높은 프로젝트이다. 인명에도, 지구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안전과 환경이라는 다양한 규제가 필요하면, 방치해서 만들게 할 수는 없다. 중국의 경우, 그것들을 1 부터 자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밀월관계에 있던 폭스바겐과의 관계를 축으로, 원칙적으로 유럽에 준하는 규제를 채용함으로써 빠르게 환경을 정비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일본제조사에 있어서 영향이 큰 일본과 구미라는 시장을 내려 봤을 때, 규제의 공통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유럽규제를 거의 미러링 한 중국, 미국의 규제를 참고하면서 발전해 온 일본이라는 구도가 된다. 일미조와 유럽중국조의 두 개로 나뉜다는 이해로 대충 될 것 같다.

차세대 시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인도는 유럽규제를 참고해 하고 있는 듯 하나, 현재 조금 머리를 식히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나중에 스즈키의 전략과 함께 해설하려 한다.

혼다의 경우

그러면, 혼다가 유럽수입차 생산거점을 중국으로 한 것은, 효율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비슷하다면 같은 공장에서 만들기 쉽다.

물론 수송문제가 있다. 혼다공장이 있는 무한이라는 도시는 내륙에 위치한다. 무한과 중격은 장강의 수리를 전제로 한 공업도시이다. 하구는 상해의 북쪽이다. 즉, 대형자동차운반선에 실린 자동차는 대만과 큐슈 사이에서 동지나해에 나간 후, 마랏카~싱가폴 해협과 수에즈운하를 경유해 사우던푸통과 노텔담, 함부르크등으로 향하게 된다. 중국국내의 수송거리를 생각한다면 일본에서 수출과 거의 같은 오히려 먼 정도이다. 즉 유럽으로 수송면에서 보면 극히 최악에 가깝다.

혼다가 지금의 생산대수에서 가능한 한 빨리 성장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신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대수를 늘리는 것이 확실히 손쉽다. 투자할 수 있는 자본에 한정이 있는 이상, 오늘 내일 가장 팔리는 장소에 투자하는 마음은 알겠다. 단, 필자는 이것에 조금 이론을 서술해 두고 싶다.

컨트리 리스크를 생각하면 한곳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혼다는 지금, 미국과 중국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도박성이 강하다. 리스크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인도와 태국에 추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수송면에서도 대폭 개선이 예상된다.

닛산의 경우

2018 년 8 월, 닛산자동차는 NEC 와 공동출자로 세운 산하의 배터리 제조회사「오토모티브에너지서플라이」를 중국기업에 양도한다고 발표했다.

전동화에 기대를 거는 닛산이 왜, 전동차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배터리 제조회사를 중국기업에 양도하는가 하면, 그것이 중국정부의 의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중국은 지금, 강력한 정책에 의해 EV(전기자동차)의 세계적 리더가 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로 타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중국에서 세계의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EV를 제조하려면 배터리를 중국에서 조달하도록」이라고 압력을 계속 걸고 있다.

즉 닛산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들여 배터리 개발과 생산을 하더라도, 일본제인 한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전세계에서 연간 약 100만대 판매되는 EV 중에, 중국은 약 60만대라는 압도적인 시장이 되어 있다.

그 중국에서 판다고 하면, 이라고 조건을 붙인다면 거역할 방법이 없다. 닛산은 중국에서의 EV 판매를 확보하기 위해서, 효자 배터리 개발회사를 중국에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필자는 보고 있다.

토요타의 경우

토요타자동차는 18년부터 중국생산에 힘을 쏟는다고 발표했다.

첫번째로, 토요타는 17년 가을, 배터리 파트너로서 파나소닉을 지명했다. 그것으로 인해 11년후 30년 시점의 달성목표로서, EV와 FCV(연료전지차)를 100만대, HV(하이브리드)를 450만대, 즉 전동차를 포함해 550만대까지 늘리려 하고 있다. 이것은 토요타 연간생산대수 1000만대의 과반을 전동화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발표이다.

더군다나 HV에 대해서 EV는 50배 가까운 용량의 배터리를 필요로 한다. 이미 서술한 100만대는 거의 모두가 EV가 될 것이라는 것은 감안한다면, HV로 환산해서 5000만대분이라는 아득한 양의 배터리가 필요하게 된다. 당연히, 정말로 그런 정도의 배터리를 파나소닉이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요지가 있다.

그리고 중국진출이다. 현재의 중국국내정책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최소한 HV, 가능하다면 EV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파나소닉을 파트너로 지명한 토요타에 중국정부가 국외조달 배터리 사용을 허용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도대체 어쩔 생각인가?

토요타 간부에 따르면, 역시 파나소닉만으로 그것이 제공가능 할지 어떨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역시 그 앞쪽의 질문에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필자가 그 흐름을 보안하자면, 중국에서 파는 자동차에 관해서만, 중국제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라기 보다는, 그것 이외는 귀착점이 상상되지 않는다.

즉 이런 스토리이다. 토요타는 글로벌한 배터리 공급을 중국에 완전히 쥐여잡히지 않으려고 배터리 파트너로서 파나소닉을 메인으로 잡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리스크를 보안할 의도를 가지고, 중국이 밀어붙이는 역지를 꿀꺽해 보인 것이 아닐까? 진척을 하면서도, 실은 조달 문제해결을 달성한 것이 아닐까?

타사와 비교해 보아도, 토요타는 압도적으로 주도면밀하다. 다른곳에서 흥내를 내려고 해도 먼저 압도적인 생산대수가 있는 것, 그리고 중국이외의 각국에서 배터리를 탑재하는 HV가 비즈니스로서 제대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강점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배터리 조달을 두 루트로 하면서 구매파워를 유지할 수 없다.

스즈끼의 경우

18년 9월, 스즈끼는, 중국의 중경장안자동차에 자사의 출자분 50% 모두를 양도할 것을 발표했다. 스즈끼의 중국진출은 빨라서, 오히려 90년대에는 순조로웠지만, 중국경제발전과 함께, 서서히 대수가 떨어져 왔다. 동사의 나가오마사히코 상무는, 19년 34분기 결산에서, 중국철수에 대해서

「원래 (자동차) 크기가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었다.

닛산이 EV에 도박을 걸었기 때문에 중국에 배터리 생산을 양도한 것과 정반대로, 스즈끼는 현재의 한정된 리소스를, 불리한 중국에 걸어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대조적으로 인도시장의 신장이 있다. 다른 제조사에 있어서 나는 새를 떨어뜨릴 기세의 시장은 중국이지만, 스즈끼에 있어서 그것은 인도이다. 스즈끼는 「크기가 맞지 않는」중국에서 이 이상 애써 소모하는 것 보다는, 인도에서 승부를 걸기로 한 것이다.

스즈끼의 설명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유럽의 프로파간다의 비현실감에 겨우 눈뜨기 시작했다. 나라를 걸고 EV화를 추진하려고 제대로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했을 때, 인도의 전력인플라의 쇠약성과, 국민소득에 대한 EV가격이 보급을 저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급하지 않으면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EV가격에 함구하고, 언제나 구식 가솔린차를 계속 탄다면 심각해지기만 하는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 사지 못하는 상품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스즈끼는 앞으로, 인도에서 철저한 HV공세를 펼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컨트리 리스크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대충 그 예측이 되겠지만, 중국최대의 컨트리 리스크는, 짝퉁 자유경제 위에 공산주의정권이 얹혀져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경제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다양한 자의적인 규제와 횡포라고 말할 수 있는 요구가 제조사 전략을 농락한다. 그래도 시장은 거대하다. 그것을 잡으려 달리면서도, 정부의 의표를 찌르는 전술이 요구되고 있다.

그만큼의 싸움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토요타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도라는 활로를 가지고 있는 스즈끼는, 그러한 싸움에 선을 그었다. 각사의 전략이 길이 될지 흉이 될지는 10년후에 상당히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池田直渡 이께다나오또

ITmedia 비즈니스온라인

3.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5G의 흐름 (my navi, 20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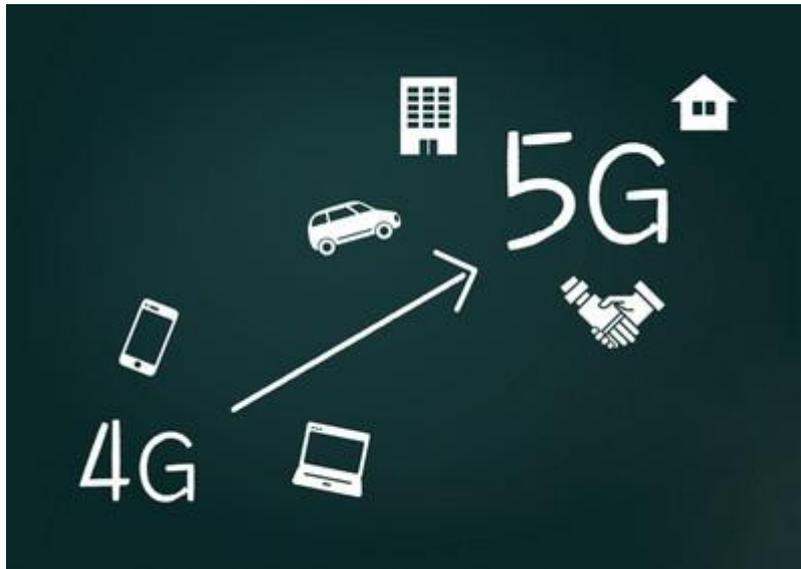
MWC 2019 소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개최되는 MWC 가 조금 전 폐막했다. 전 세계 국제전시회 중에서도 주목도가 매년 높아지는 이 세계적인 이벤트는, 올해도 더욱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모아 지난주의 기술, 경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진】2019년 MWC에서 발견한 5G 시대를 위한 개성과 가젯트

문득 작년도 이 무렵에 MWC 에 대해 컬럼을 쓴 것을 떠올리며 이전 원고를 읽어 봤다. 그 컬럼에서 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은 전환점을 맞는 건가?



화웨이 등 중국기업이 통신기술에서 헤드.

스마트폰, 비즈니스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5G 가 열쇠를 쥐다.

대충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지만, 맞지도 않았지만 틀리지도 않지만, 꽤 둥글고 무난한 컬럼인 듯 느낀다.

올해의 이벤트에서도 각사가 신제품, 서비스의 발표로 치열한 경쟁을 보이는 듯 하지만, 이들을 전하는 다양한 기사를 읽은 감상을 올해 다루려고 한다.

전 세계 산업계가 5G 기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5G 에 관한 보도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넘치고 있다. 이 웅성한 느낌은 전에도 느꼈던 것이라고 추억을 더듬었지만, 1990년 초의 Windows 3.1 이 일본에 상륙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많이 팔리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의 5G 에 대한 전 세계의 기대감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어떤 기존의 플랫폼에는 완전히 정의되지 않는 뭔가 굉장한 것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도 있고, 보이는 풍경도 전혀 다르다.

Windows 3.1 때의 주역은 Wintel(Intel 과 Microsoft) 이라는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 연합만이었지만, 이번의 5G 에서는 미국 쪽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리를 바꿔 존재감을 늘리고 있는 것이 도리어 중국 쪽이다. 삼성이 행사 전에 디스플레이를 2 장 사용해 접는, 한마디로 폴더블폰을 출시해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서 발표했지만, 폴더블폰은 5G 기술과 페어가 되어 화웨이와 같은 중국, 한국 등 아시아세력이 화제를 싹쓸이하고 있다. 중국의 위세와 그를 둘러싼 상황에서 깨달은 것은 다음과 같다.

화웨이가 현재 보유한 기술은 꽤 우수하다고 느낀다. 연구개발에 투자는 특출나기 때문에, 아직 준비 중인 것이 많은 듯한 여유조차도 느껴진다. 무엇보다 중국 측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임상 시험을 이미 끝내고 진입한 감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둘러싸고 발전하는 5G 미래에 있어서, 임상 시험을 끝낸 플랫폼은 상당히 강력한 무기이다.

MWC 가 미중의 무역 경제 도중에 개최된 것도 있어서, 각국의 스탠스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배제를 외치며 호주, 캐나다, 일본에 압력을 걸고 있지만(그런데 일본은 2020 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인프라 구축에서 화웨이 없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유럽은 각국의 생각과 캐리어 비즈니스에 대한 스탠스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한마디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기지국에서 세계 공유를 화웨이와 싸우고 있는 노키아와 에릭슨은 경제성에서 앞서가는 화웨이와 대조적으로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가 GDPR(EU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에서 세계를 선행하고 있는 것이 배경에 있다.

한국 측은 독자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다. KT(Korea Telecom)가 5G 의 상용서비스를 3 월부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SK Telecom 도 VR 을 중심으로 한 5G 를 선보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중국의 정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전인대(전국민대표대회) 개최를 3 월 5 일 앞두고 관세 제재를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미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연장회피라는 수를 써서, 시주석에 떡을 건네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고, 이러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세계의 5G 확대는 이 두 강대국의 세력상 영향을 받으면서도 기술 혁신은 지속해서 계속되고 있다.

5G 를 중심으로 인프라 세금 논평을 오가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지국, 단말기, 캐리어, 산업계가 한꺼번에 휩쓸려 들어온 양상이다. 현재로서는 어디서 누가 누구와 무엇을 손을 잡고 있는지가 전혀 감 잡을 수 없다. 현재의 협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보장은 물론 없다. 향후 등장하는 5G 애플리케이션의 천하장사라고 할 수 있는 무인 주행이 준비운동을 시작한 느낌이다.

존재감이 없어서 돋보이는 것은 애플이다. 통상 애플은 이러한 공적인 이벤트에는 관계없이 자신의 페이스로 발표를 하므로 놀랄 것은 없지만, 지난달의 애플 충격 후이므로 이러한 침묵은 무척 충격적이다. MWC 전에 애플이 발표한 것으로 눈에 띄는 것은, 금융회사 골드만삭스와의 협업이라는 형태로 발표한 신용카드이다. 애플페이와 iOS 의 조합으로 일반적인 신용카드에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세한 것은 물론 알 수 없다.

지장이 없는 업계 인의 숙명

나는 젊은 사람들과 같이 스마트폰에 의존한 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 디스플레이의 폴더블폰이라고 들어도 바로 확 와 닿지 않는다, 「전송 속도가 4G 의 100 배 가까우며 5G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스마트폰에 실시간의 영상을 바로 보내는 것조차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으면, 「가격에 따라 살지도 모르겠네」라는 식이 된다. 게다가 5G 의 가능성은 컨슈머의 세그먼트에 한정되지 않은 금융, 의료, 환경, 에너지 등 사회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35 년의 반도체 인생에서 나는 단 한번도 신기술의 선행 유저였던 적은 없지만, 신기술이 순식간에 당여화 되는 과정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이맘때, 다시 MWC 의 뉴스를 접할 때, 해당 칼럼을 다시 읽게 되겠지만, 역시 그때도 이번과 같이 「역시 어플리케이션이 열쇠」 등이라는 흔히 있는 말투가 되는 것은 업계에 있는 인간의 숙명이라고도 생각해 본다.

4. 텐센트, 11 년간 700 사에 투자, 그 중 63 사가 상장 (CNS AFP, 2019.3.4)

【CNS】위챗을 운영하는 중국 IT 기업인 텐센트(Tencent)는 최근 11 년간에 걸쳐진 부동산의 투자 데이터를 대외용으로 발표했다. 투자기업은 합계 700 사로, 그 중 63 사가 상장 회사이다. 2018 년은 16 사가 주식 공개(IPO)를 했다. 부동산이 투자명세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텐센트 馬化騰 CEO (2018 년 9 월 5 일 촬영, 자료사진)

최근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IT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이들은 동일업계 기업에 멈추지 않고, 전통적인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외부적으로 공개된 것 외에도, 텐센트의 투자는 게임과 스포츠를 포함한 e-sports, 의료와 교육, 금융등 많은 분야에 진출했다. 본래 과학 기술 기업인 텐센트의 이러한 투자활동은 「본래의 꿈을 포기한 것인가」라고 야유를 받기도 한다.

텐센트의 劉熾平 (Martin Lau) 총재는, 최근 열린 회사 투자연차 모임에서 투자를 통해 텐센트와 협력파트너 사이에 더 나은 상호관계를 맺어나가겠다고 밝혔고, 투자를 통해 텐센트는 자사의 플랫폼과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그것이 강화될수록, 파트너 기업도 텐센트에 의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8 년은 인구보너스에 의한 메리트 저하와 매크로 경제의 시프트체인지에 따라, 인터넷 투자는 냉각됐다. 그러나 劉총재는 「19 년도 커다란 도전」이라고 하고 있다. 「투자는, 텐센트 전 그룹에 파급하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 19 년의 투자규모도 축소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c)CNS/JCM/AFPBB News

※이 기사는, CNS (China News Service) 뉴스를 JCM 이 일본어 번역한 것입니다. CNS 는 1952 년에 설립된 중화인민공화국 국영통신사입니다.

5. 계속 가열되는 중국의 「인재쟁탈전」, 부동산시장에도 리스크(CNS AFP, 2019.3.4)

【CNS】최근 2년간, 중국기업의 「인재쟁탈전」은 멈출지를 모른다. 많은 지역이 2019년 이후, 새로운 인재정책의 도입과 개선안등이 도입되어, 주택보조금과 생활수당, 보조적보장등을 갖추고, 더욱 많은 인재가 현지에서 인재를 구하는 기업에 취직하고, 유동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예를들어, 신천시정부는, 인재를 조속하게 기업이 받아주는 관련법안을 내놓고, 18년 6월부터 대학졸업생을 중심으로 귀국자녀, 박사연구원, 및 배우자의 이전처 주민등록등, 인재의 관련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또, 강소성진강시는, 대학졸업생을 지방에 묶어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방창생인재지원제도를 실시해, 연간 약 1만 6000명의 대학생 인재를 불러 들였다. 현지에 취직한 대학생과, 석사, 박사등 상급학위를 가진 대학생에, 3년간 약 15만위안(약 246만엔), 자택구입시에는 20만위안(약 329만엔)의 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을 지난달 막 발표했다.



▲2018 대형취업세미나에 참가하는 학생들 (2019년 2월 16일 촬영, 자료사진)

이 외에, 浙江省 (Zhejiang) 寧海縣 (Ninghai)、海南省 (Hainan) 海口市 (Haikou) 와 陵水 (Lingshui) 黎族 (Lizu) 自治縣 등, 각시현급 지역에서도 집중된 인재정책안이 나오고 있어, 올해 들어 인재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도시는 이미 16 도시를 넘는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서포트와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견인되는 형태로, 인재를 경제발전지구와 인구밀집 지구에 집중한다.

그러나 이 2년은, 각지역의 인재에 대한 장려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호적에 관한 신제도실시부터 18년말까지로, 陝西省 (Shaanxi) 西安市 (Xi'an) 의 신규거주인구는 105만명을 넘었다. 또, 南京 (Nanjing)、合肥市 (Hefei)、成都市 (Chengdu) 등에서도 평균으로 10만명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대기업부동산그룹, 中原地產 (Centaline Property) 의 張大偉 (Zhang Dawei) 수석 애널리스트는, 「인재정책에 의해, 주택구입의 제한조치 허들이 너무 낮아지면, 인재를 유치한 후, 수급구조가 정비되지 않은 지방의 부동산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장래적으로 주택가격의 급등등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도시는, 인재의 주택구입제한과 호적등록신청의 허들을 계속 낮추고, 어떻게 지방에 인재를 머물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인재정책이 부동산투자의 『창구』가 될 리스크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CNS/JCM/AFPBB News

※이 기사는, CNS (China News Service) 뉴스를 JCM 이 일본어 번역한 것입니다. CNS 는 1952 년에 설립 된 중화인민공화국 국영통신사입니다.